



2026. 10. 15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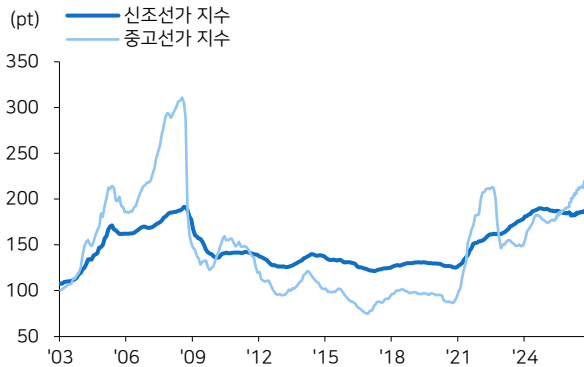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7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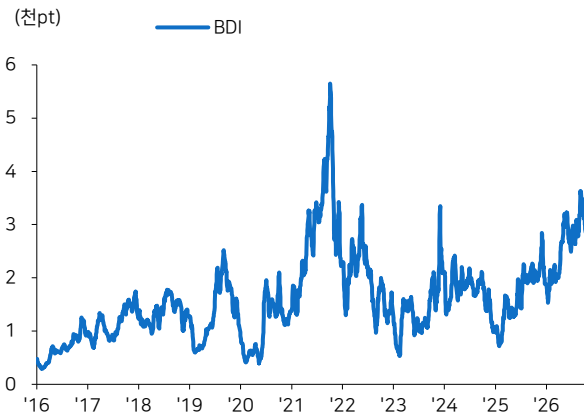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3.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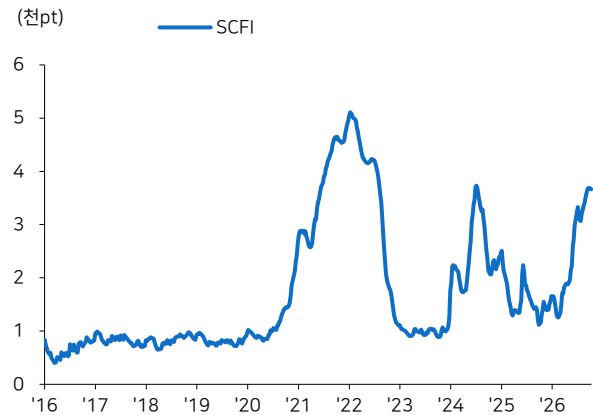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01.0p (-5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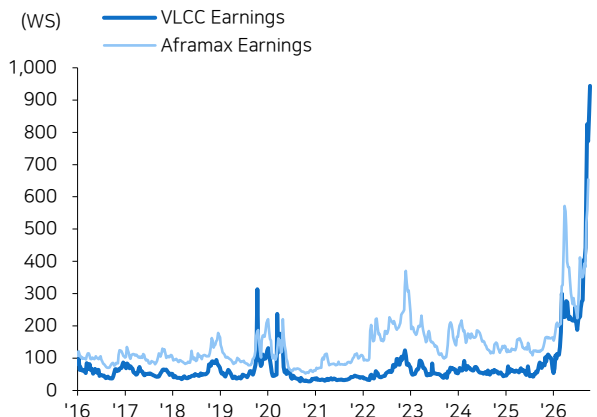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64.1 (+1.8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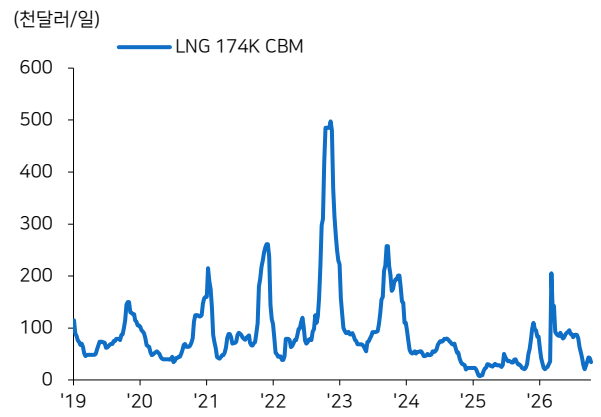
VLCC Spot Rate

944.2WS (+91.8 WoW)



LNG Spot 운임

34.3천달러 (-8.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트럼프 "대만, 알래스카 LNG 에 약 6 조원 투자...한국 약속에 더한 것" (뉴시스)

<https://zrr.kr/TCdE2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이 향후 20년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고, 한국의 기존 투자 약속과 별도로 44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됨.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만 측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대만중유공사(CPC)는 지난해 3월 알래스카 가스라인개발공사(AGDC)와 LNG 구매 및 가스관 사업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알려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도 압박하며 투자액 증액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짐.

TotalEnergies eyes fast-track Phase 2 of Mozambique LNG (Upstream)

<https://zrr.kr/pife3c>

TotalEnergies가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으로 액화설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존 2029년 전후로 예상됐던 증설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약 200억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연산 1,310만t 규모의 액화설비 2기를 건설 중이며, 현장에 투입된 약 1만명의 인력을 1단계 완료 후에도 유지해 2단계 공사에 즉시 투입하는 방안과 모듈형 건설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짐. 모잠비크 LNG의 육상·해상 공정률은 각각 50% 수준이며, 1월 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TotalEnergies는 Area 1의 풍부한 가스 매장량과 ExxonMobil의 인접 광구 가스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짐.

Energy trader BGN returns to South Korean yard for VLGC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dQldj8>

BGN이 HD현대중공업에 93,000㎥급 LPG 이중연료 초대형가스운반선(VLGC) 4척을 추가 발주했으며, 2030년 1월 인도 예정으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됨. 이번 발주로 BGN의 HD현대중공업항 이중연료 VLGC 발주량은 올해 총 10척으로 늘었으며, 기존 4월 발주한 9만㎥급 4척과 6월 발주한 93,000㎥급 2척은 2029년 인도 예정이고, 신조선은 LPG와 기존 선박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짐. 이번 계약으로 BGN의 보유 VLGC 선대는 19척에서 23척으로 확대되며, 회사는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사업을 뒷받침할 해상 운송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료 효율 개선과 해운 부문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한다고 전해짐.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본인증 획득 (연합뉴스)

<https://zrr.kr/OnjvQr>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셔틀탱커용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기본인증(AiP)을 획득했다고 보도됨. 해당 시스템은 배터리를 추가 장착해 원유 선적 중 선박 위치 제어에 필요한 보조 동력을 공급하며, 엔진 부하를 낮춰 연료비와 탄소세를 절감하고 추진기 고장에 따른 선적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16일까지 열리는 '오프쇼어 코리아 2026'에서 설계 자동화 플랫폼 S-EDH와 디지털·AI·로보틱스 기술 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친환경 솔루션 및 디지털 기술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HD 현대 사우디 합작조선소, 해양플랜트 사업 첫 진출 (더구루)

<https://zrr.kr/vAGCGC>

HD현대가 지분 20%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합작조선소 IMI가 UAE 해양 인프라 기업 Lamprell과 해상 생산 플랫폼 및 재킷 등 해양 구조물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계약에 따라 IMI는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알 카이르 시설에서 해양 석유·가스 시설용 생산 플랫폼과 철골 구조물을 제작하며, 계약 규모와 제작 물량, 인도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알려짐. 이번 계약은 IMI가 해양 생산 플랫폼과 재킷을 제작하는 첫 프로젝트로, 기존 상선 건조 및 시추 장비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해양 엔지니어링·구조물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전해짐.

한화 인수효과 '특독'...필리조선소, 美 맷슨 1호 컨테이너선 명명식 개최 (더구루)

<https://zrr.kr/TCdE2d>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국 해운사 맷슨(Matson)의 선대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3척 중 첫 번째 선박인 '마쿠아(Makua)'의 명명식을 개최했으며, 총계약 규모는 약 10억달러라고 보도됨. 신조선은 길이 약 260m, 3,600TEU급으로 LNG 이중연료 엔진과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으며, 마쿠아는 2027년 1분기, 후속 선박 말라마와 마케나는 각각 2027년 3분기와 2028년 2분기 인도 예정으로 알려짐. 맷슨은 신조선 3척을 하와이 및 중국~롱비치 특급항로(CLX)에 투입해 기존 선박을 대체하고 운항 효율과 수송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양사는 2003년부터 컨테이너선 건조·인도를 이어온 20년 이상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